

인자의 명칭의 의미

오늘은 인자의 명칭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 : 28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먼저 구약에서 인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1. 구약에서의 용어 사용의 예

인자가 맨처음 나오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인 사람 욥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 년전 입니다.

욥기 25 : 6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욥기 35 : 8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How much less man <H582>, *that is* a worm <H7415>? and the son <H1121> of man <H120>, *which is* a worm <H8438>?

Thy wickedness may hurt a man as thou art; and thy righteousness may profit the son of man.

이 구절에서 인생이 the son of man 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인류-mankind 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구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에스겔 서입니다. 약 90 번이 나옵니다.

에스겔 8 : 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인자는 예언자 자신을 가르킵니다.

이상의 구절에서 살펴 본 것은 인자에 대한 히브리적 용법은 단순한 사람 혹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다니엘 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7 : 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 7 :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서에서 인자가 천상적인 존재를 가르키는 말이라 할지라도, 인자의 대표적인 의미는 사람을
가르키는 말입니다(William Barclay [son of man-verses 1.docx](#) . 중간기의 에스라서나 에녹서에 나타난
인자는 신약적인 용법과 관련이 없다¹).

2.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의 의미

인자는 히브리어 세계에서는 단순한 ‘사람 혹은 인류’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인자의 명칭을 도입하셔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를 가르키는 것인지 언제나 애매모호하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인자가 누구냐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힐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 :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들의 이런 혼돈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은 인자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 : 13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인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였지만 베드로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였습니다.

¹. Donald Guthrey NT Theology, Son of man 참조

나아가서 신자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자신을 가르치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 :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 :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인자의 살과 피는 내살과 내피라 하심으로 인자가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한구절 더 찾아 보십시오.

요한복음 8 : 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구절에서 ‘인자를 든후에’는 lift up 으로 ‘하늘로 들려 올리고 난 후에’를 의미합니다. ‘인자가
들려 올리고 난 후에 내가 그인줄 알리라’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에게 도입하신 후에는 이것은 독특한 의미를 가진
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시는 그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자의 명칭을 사용하실 때 당신의 자의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예수님의 자의식을 깨달으면 기독교의 이해에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 갑니다.

3. 그러면 예수님의 자의식에 있어서 인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키는 대표적인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대비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용어가 인자입니다. Son of Man, Son of God!

인자가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키는 말이지만 이 말이 범상한 의미가 아닌 것은, 인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없이 원형 그대로 간직한, 다시 말하면, 죄없이 태어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자신의 생명을 만인을 위한 속전으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 : 28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음에 더욱 중요한 사항은 인자의 기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든 인간의 기원은 흙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땅으로 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흙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 : 6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 인자의 기원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인자가 이전에 계시던 곳은 하늘입니다.

인자는 하늘로 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의 선교 초기부터 확실히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 :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인자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다는 말은, 인자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흙에서 온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자는
땅에서 온 분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아버지 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의 기원이 땅이 아니라라는 것, 흙이 아니라라는 것에 대해 더 공부를 하십시오.

요한복음 8 :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받아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서 오서 하늘로 가신 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로 다시 가셨다. 이것이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우리와 같은 땅의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되 그 기원이 하늘이신,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의미이다.

4. 하늘에서 오신 인자의 권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의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참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 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자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것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마가복음 2 : 1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2 :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마가복음 2 :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마가복음 2 : 4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마가복음 2 : 5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 :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마가복음 2 :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가복음 2 : 8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마가복음 2 :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 :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2 :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가복음 2 :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 :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신 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실 수 있지만, 인자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 :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 :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 : 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로 말마암아 예수님은 내가 그인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 : 24 —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은 고난 당하신 인자가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앉을 것을 보여 줍니다. 인자가 직접 왔었기 때문에, 그 인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자가 직접 와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인자가 심판 자리에 앉으실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계시록 20 :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인자가 직접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 : 22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 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